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谷城 道東廟 晦軒實記木板)



주소 곡성군 오곡면 오지4길 29

전화 -

추천 0

이용시간 정보없음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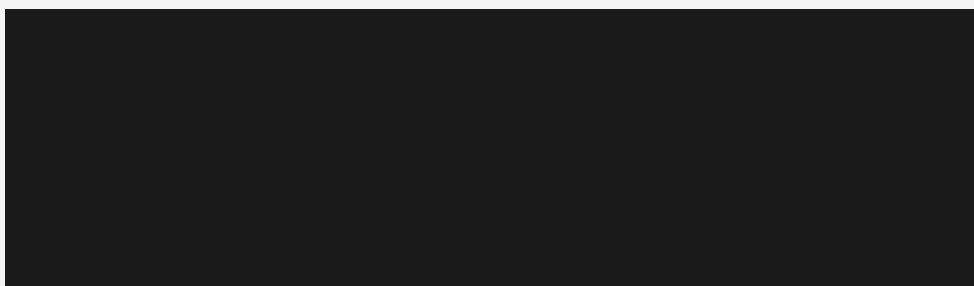
문화유산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유형문화유산 제210호	1999.07.05	조선시대	87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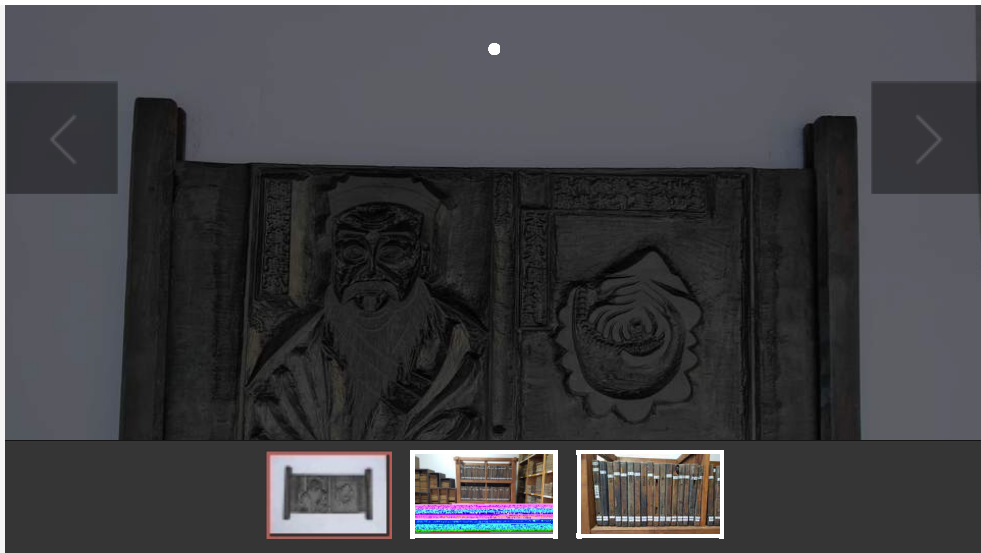
고려시대 문인이자 유학자인 안향(1243~1306)의 시문집 『회헌실기』를 간행하기 위한 목판으로, 영조 42년(1766) 죽계서원에서 간행한 초간본 목판 55매와 고종 22년(1845)에 간행한 중간본 목판 32매 등 총 87매이다.

안향은 원종 1년(1260)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 감찰어사, 좌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주자학의 학풍을 보고, 주자 관련 서적을 베껴오고,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안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를 일러 '동방의 주자'라고 하였다. 시호는 '문성'이며, 여러 서원에서 그를 모시고 제사지내고 있다. 그의 영정이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목판은 판각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인쇄사 측면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현재 전남 곡성의 도동묘에 소장되어 있다.

※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



★ 곡성 도동묘 회현실기목판 (谷城 道東廟 晦軒實記木板)

📍 곡성군 오곡면 오지4길 29

☎ 정보없음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 곡성 도동묘 회현실기목판 (谷城 道東廟 晦軒實記木板): 곡성군 오곡면 오지4길

📍 대중교통길찾기

29

목록으로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gokseong.go.kr/tour>)

Web Contents

